

홍재 군에게 보내는 편지

이제 어엿한 중견 교수가 된 사람에게 ‘군’이라는 호칭을 붙여 미안하네. 그렇지만 새삼스레 ‘교수’라고 부르려니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정답지도 않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예전에 늘 하던 대로 자네를 ‘홍재 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네. 한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니까 내가 그렇게 불러도 괜찮겠지?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해 주게. 바로 고쳐서 부를 테니.

먼저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부터 밝혀야 하겠군. 지난 번 이 소식지에 자네가 올린 글에서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자네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오랜만에 자네를 보고 던진 첫 마디가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군.”이었단가? 지금 난 잘 기억이 나지 않네만. 하여튼 자네는 그것을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는 말로 해석했고.

구구한 변명을 하지는 않겠네. 솔직히 말해 그런 뜻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의 그 옛된 모습이 어디로 갔느냐는 뜻이었네. 내가 기억하기로 유학을 떠나기 전 자네는 유달리 볼이 발가스레한 미남 청년이었네. 그런 자네가 40대의 중년으로 내 앞에 불쑥 나타나니 놀라울 수밖에. 그 순간 불현 듯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탄식이 흘러나온 것일세.

내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자네가 사은회 때 나와 팔씨름을 하지 않았나? 언젠가 사은회 때 학생들과 팔씨름을 했던 기억이 나네. 학생 두어 명을 꺾고 의기양양해 하던 차에 어떤 친구에게 참패를 당한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바로 자네였다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자네 석사논문 발표 때 내가 크게 칭찬해 준 적이 있네. 당시의 나는 까다롭기로 유명했던 터라 칭찬을 받고 오히려 놀라는 모습이더구만.

지난 가을 나 역시 옛 스승에게 주책없이 나이든 모습을 보여 드려 놀라게 만든 적이 있다네. Princeton대학을 방문했을 때 논문을 지도해 주셨던 Alan Blinder교수를 만나뵈었어. 1980년 박사학위를 받고 떠난 후 처음 뵈는 것이니 28년만의 해후였지. 그때는 예전의 자네처럼 나도 갓 서른의 꽃다운 청년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반백의 중년이 되어 불쑥 나타나니 놀라시는 게 당연하지.

심포지움에서 강연하러 오신 분 앞에 갑자기 나타나 “Do you remember me?”라고 외쳤어. 그랬더니 이거 어디서 오신 동양분이신가?“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시더군. 잠시 멈칫 하신 후 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더니 그 때야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시며 반가워하시는 거야. 그때 스승의 따뜻한 손길을 처음 느꼈지.

그 분을 자세히 바라보니 예전보다 엄청나게 나이 들어 보이시는 것 아니겠어? 내가 나이든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생각만 들더군. 더군다나 얼굴이 상당히 수척해 보이셔서 조금 가슴이 아프네. 얼마 전에 편찮으셔서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지라. 그 후 연구실로 찾아보니 예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위트가 넘치시고 사회비판도 날카롭게 하시더군. 그 분의 진보적 자세를 예전부터 흠모해 왔던지라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좋았다네.

홍재군, 자네는 이제 인생의 절정기에 와 있다네. 혹시 스스로 나이가 먹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일부러 이 말을 하는 것일세. 지금 내 나이가 되면 자네만한 나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 나이면 못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 항상 젊고 원기 있게 생활하도록 하게.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으면 그것을 부지런히 쫓도록 하고.

올해로 내가 교수 생활 시작한 지 29년이 되네. 한 한기 한 학기 보내다 보니 벌써 그렇게 되었어. 교수 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자네 같은 제자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일세. 스승과 제자 사이 관계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결부되지 않는 순수 그 자체가 아닐까? 이런 아름다운 관계는 다른 데서 찾기 힘들네. 우리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고이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네.